

# “사무엘상”



웨슬리의 구원의 삶 4 단계에 맞춘 소그룹 성경공부

## 황 헌 영 목사

### 성경공부의 과정: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신학(Incarnational Theology)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고 인도자가 던진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Inductive Bible Study)  
 성경적인 삶의 가치, 정체성,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Biblical Value, Identity, Purpose, VIP)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하고 (Social Holiness)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책임있는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해서 (Accountability, Covenant)  
 개인 구원 (Individual Salvation-성령의 9 가지 열매를 맺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이룬다 (Communal Salvation-사회 정의와 문화 변혁을 실현함).

### 각 과의 틀:

웨슬리의 <은총의 신학> (Grace Theology)에 기반해서  
 다음 5 가지 틀에 맞추어 성경공부가 진행됩니다.

- 먼저오심 (Prevenient Grace),
- 만나주심 (Justifying Grace),
- 다듬으심 (Sanctifying Grace),
- 들어쓰심 (Christian Perfection),
- 삶의 현장에서(Communal Salvation and Social Holiness)에 맞추어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을 만들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등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관찰, 해석, 적용> 질문의 세 단계로 나누는데,  
 웨슬리의 은총 신학은 <관찰>과 <해석> 질문을 한 후에는, 적용 질문을 <먼저 오심>,  
 <만나주심>, <다듬으심>, <들어쓰심>,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로 세분한다. 그래서 각 과에  
 질문은 세 단계가 아니라 7 단계가 된다.

## 질문의 구성과 성경 공부 인도 주안점

<b>관찰</b>	본문을 읽고나서 누구나 쉽게 관찰하고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대화의 장을 연다	
<b>해석</b>	성경안의 호기심을 당기는 질문을 통해 전체 성경공부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때 아직 정확한 뜻을 얻지 못해도 괜찮음. 아래 질문들에 답하며 나누다 보면 차차 깨달아 질 수 있음)	
<b>먼저오심</b>	<b>Prevenient Grace-선행 은총</b>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황을 떠올리고 그 때 주님이 어떻게 찾아 오셔서 만나 주셨는지 나눈다. (선행은총: “주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뜻)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어떤 식으로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셨나요?
<b>만나주심</b>	<b>Justifying Grace-의인의 은총</b> <u>예수님을 만나서 죄책감, 수치심, 불안감, 공포에서 벗어나 자기를 긍정하게 된 순간을 되새기도록 도와주는 질문을</u> 만들어 주세요. 이 때 <b>정체성(Identity)</b> 을 확립해 주는 질문을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의인은총: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뜻으로 믿음과 회개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 거듭남/중생과 같은 의미)	그렇게 _____ (앞에 표현한 단어를 사용하여 묘사함) 었던/하던 성도님의 삶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던 경험을 언제 어디서 하셨나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게 되었나요?
<b>다듬으심</b>	<b>Sanctifying Grace- 성화 은총</b> <u>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넘어지는 과정을 반복하지만 성장하도록 돕는 질문을</u> 만들어 주세요. 이 때 <b>삶의 가치관 (Value)</b> 를 확인해 주는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성화는총: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온전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신자의 실제 삶과 삶의 능력/치유의 은혜를 부여받는 경험을 말함)	성도님의 삶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오도록 돕는 사람이나 수단은 무엇인가요? 성도님이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붙잡았던 성경적인 가치는 무엇인가요?
<b>들어쓰심</b>	<b>Christian Perfection-그리스도인의 완전 신앙인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보람을 확인하게 도와주는 질문을</b> 만들어 주세요. 이 때 <b>삶의 목적 (Purpose)</b> 을 되새기게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님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b>공동체에서 실천</b>	<b>In community life-</b> 믿음의 공동체 실천. 실제 매일의 삶에서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질문입니다.	성도님은 앞으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런 빛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 차례 Table of Contents

1. “기도를 통한 변화”	5
2. “하나님의 음성 듣기”	7
3. “전쟁의 진정한 무기는?”	9
4. “평안을 되찾는 비결”	11
5. “사람을 왕으로 원하는 백성”	13
6. “주어진 일을 위한 최선의 방법”	14
7. “자기 마음부터 다스리라”	16
8. “아버지 보다 나은 아들”	19
9. “감사의 봉헌”	21
10. “예상치 못한 다음 왕의 모습”	23
11. “준비된 일꾼”	25
12. “믿음이 주는 진정한 용기”	26
13. “시기와 질투의 현장”	29
14. “시련의 골짜기”	32
15. “원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삶의 자세”	34
16. “관대한 지도자”	36
17. “아쉬운 인생”	39

## 1. “기도를 통한 변화”

[삼상 1:4-23, 새번역]

4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5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달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6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달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7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8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열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9 한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10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11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13 한나가 마음 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14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यो? 포도주를 끊으시오."

15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16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7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18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19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20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21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제사와 서원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22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땔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땔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뵈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 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23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땔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땔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b>관찰</b>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었나요?
<b>해석</b>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이러한 서약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의미인가요?
<b>먼저오심</b>	한나는 성전에 오를 때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다른 부인 브닌나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으나 자신은 수태를 하지 못하므로 브닌나가 이를 계기로 한나를 업신여기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됩니다. 주님은 왜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기까지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2 장의 한나의 감사기도를 참조해 보세요) 당신도 괴로움을 안고 기도를 하던 경험이 있나요?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 되었을 때 이전의 괴로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나요?
<b>만나주심</b>	주님은 한나로 하여금 괴로움 속에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였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으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까지 올립니다. 그러자 주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될지라도 외부상황은 쉽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기도를 통해 얻는 주님의 평화는 어떤 것인가요? 함께 나누어 보세요.
<b>다듬으심</b>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음식을 다시 먹고 얼굴에 더이상 슬픈 기색을 띠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본래의 삶에 충실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아직 소망하는대로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한나는 이미 내면으로부터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외부상황 보다 기도자의 내면과 인격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에 당신이 내면으로부터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나요?
<b>들어쓰심</b>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몇 마디 말을 드리고 그 기도 제목을 일단락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서원한대로 기도로 얻은 자식 사무엘을 주님께 바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거룩한 나실인(구별된 사람) 키우기 위하여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당신이 어렵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기쁨의 선물을 당신은 어떻게 사용하였나요?

<b>공동체에서 실천</b>	괴로워 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하였다고 꾸짖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의 마음은 더 아팠을 것입니다. 당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나요? 당신은 그에게 다가가 무어라고 말해 주겠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	---

## 2. “하나님의 음성 듣기”

[삼상 3:1-21, 새번역]

1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3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4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5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6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애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7 이 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8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9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10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1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12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13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 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 주었다.

14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15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16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17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 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18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19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20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21 주님께서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b>관찰</b>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b>해석</b>	사무엘은 언약궤와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여호수아 18:1-2 참조)
<b>먼저오심</b>	주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려고 찾아 오십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시기 위하여 먼저 취하신 방법이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b>만나주심</b>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지만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줄 알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당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분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나요? 그 때에 어떻게 반응(행동) 하였나요?



<b>다듬으심</b>	(15 절에 보면) 아침에 사무엘은 한 밤중 환상가운데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 합니다. 하나님을 직면하여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 메시지를 정작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어려워 합니다. 갈 1:10, 2:14 의 사도 바울 질문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중에 누구를 더 두려워 하고 있나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아직 변화되어야 할 성격이나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b>들어쓰심</b>	이 일이 있는 이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대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선포하는 일마다 이루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행할 때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b>공동체에서 실천</b>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환히 밝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잠자리를 두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간직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실시하고 있나요?

### 3. “전쟁의 진정한 무기는?”

[삼상 4:2-18, 새번역]

2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사천 명쯤 되었다.

3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4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5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6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나?"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7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8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9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10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저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저서, 보병 삼만 명이 죽었다.

11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12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 나와, 그 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13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14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15 그 무렵, 엘리는 아흔여덟 살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17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18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 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마흔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b>관찰</b>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메고서 싸운 전투에서 패하여 잃은 병사의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b>해석</b>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치고 맙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사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b>먼저오심</b>	삼상 4 장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망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허용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 줍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게 된 경험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아픔까지 허용하셨나요?
<b>만나주심</b>	전쟁터에서 패전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슬피 울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씩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쓰러져 생명을 잃어 버립니다. 패배의 고통은 너무도 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b>다듬으심</b>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임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면 틀림없이 이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자기들을 칠까 두려워 하며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다는 언약궤라는 물체를 더 의지하였고 오히려 블레셋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두려워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무엇인가요?
<b>들어쓰심</b>	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습니다. 병사의 손실도 컸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으며 제사장이자 사사인 지도자 엘리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3 장에서 어린 사무엘이 보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를 살펴 봅시다.)
<b>공동체에서 실천</b>	당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영적으로 훼손되고 손상된 영역이 있나요? 그 것을 바라볼 때에 당신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소 그룹에서 나누며 기도해 보세요.

#### 4. “평안을 되찾는 비결”

[삼상 7:3-17, 새번역]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4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5 그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6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8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9 사무엘이 젓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 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11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벧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12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둘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13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다. 14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15 사무엘은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6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17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b>관찰</b>	사무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 기도 할 때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고 번제를 드릴 때에도 제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제물로 쓰인 것들은 무엇인가요?
<b>해석</b>	에벤에셀의 뜻은 무엇인가요?
<b>먼저오심</b>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먼저 영적으로 재정비할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도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고 사람들은 점차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것이었나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오 인하여 어떠한 소망을 갖게 되었나요?
<b>만나주심</b>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금식을 하고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물을 길어다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 부으며 기도합니다. 그동안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을 만나 회개할 때 당신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b>다듬으심</b>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옵니다. 하나님앞에 회개하며 신앙적으로 다시 살겠다고 결단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b>들어쓰심</b>	사무엘은 전쟁을 마친 후에도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인도하고 사사로서 이스라엘 내부의 분쟁을 중재합니다. 그리고 이방민족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평화의 일들은 무엇인가요? 주님과와의 관계, 내면세계의 균형과 질서,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유지를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영역 들을 살펴 보세요.
<b>공동체에서 실천</b>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에벤에셀'이라 명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지닌 자랑스런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통해 당신의 공동체와 함께 해오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나요?

## 5. “사람을 왕으로 원하는 백성”

[삼상 8:5-22, 새번역]

5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6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 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7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8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9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 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 주어라."

10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11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12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들이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13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14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에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16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17 그는 또 당신들의 양 떼 가운데서 열에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18 그 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 때에 주님께서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9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21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b>관찰</b>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나요?
<b>해석</b>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b>먼저오심</b>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을 갖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왕이 행할 부당한 일들을 미리 아시면서도 그것을 허락 하십니다. 인간은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 일을 치르고 나서야 후회 하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일을 감행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 뜻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b>만나주심</b>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위로 하십니다. 이 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b>다듬으심</b>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외형적인 면만을 보고 지도자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은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무엇을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실까요?
<b>들어쓰심</b>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을 맡아 수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도 헤아리게 됩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b>공동체에서 실천</b>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는 상황이 생긴다면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22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 6. "주어진 일을 위한 최선의 방법"

[삼상 10:1-13, 새번역]

- 1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 2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3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4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5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 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 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거문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6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7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8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레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 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9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 날로 다 나타났다.

10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11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12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13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b>관찰</b>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누구를 만나라고 합니까?
<b>해석</b>	사울은 사무엘이 지시한대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 찬양을 하며 춤을 출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이란 무엇인가요? 점장이 처럼 사람들의 앞 날에 일어날 일들을 전하는 것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 'nabi'의 역할은 무엇인가요?(삼상 9:6, 왕상 12:22, 렘 35:4)
<b>먼저오심</b>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받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게된 하나님의 일은 '어포인트먼트'(과송)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미처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소명이 있나요?
<b>만나주심</b>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예언자들의 무리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한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들마다 그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신비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어떠했나요?
<b>다듬으심</b>	예언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들은 “기스의 아들이 누구인가? 그가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왕으로서의 자질을 보여 주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사울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b>들어쓰심</b>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전히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을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변치않고 계속해서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요?
<b>공동체에서 실천</b>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당신을 부르시어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요?

## 7. “자기 마음부터 다스리라”

[삼상 13:1-15, 새번역]

1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마흔두 해였다.

2 그는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이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일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3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4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 와서 사울을 따랐다.

5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에다가, 기마가 육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벳아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6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7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 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8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9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10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11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2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14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b>관찰</b>	사울은 몇 살에 왕이 되었고 얼마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b>해석</b>	사울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 것이었나요?
<b>먼저오심</b>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무엘을 통해 전달할 말씀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애타게 하나님을 기다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당신이 순종하며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지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주심	사울은 마음이 급하여 그만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실행 합니다. 바로 그 때 사무엘이 나타났고 당혹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역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죄로 인해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끄러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듬으심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쟁에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 하여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여 꾸짖음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삶 속에도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들어쓰심	사울왕은 제사장 사무엘을 만나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여 전쟁에 임해야 했습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적 무장 상태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필요한 영적인 무기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에서 실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귀한 섬김과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소그룹에서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15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 보니, 약 육백 명쯤 되었다.

## 8. “아버지 보다 나은 아들”

[삼상 14:1-15, 20-23 새번역]

- 1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 2 사울은 그 때에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육백 명쯤 되었다.
- 3 (아히야가 예뿌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둡이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 4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 5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올라 게바를 바라보고 있었다.
- 6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레발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 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 7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 8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 9 그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꿈쩍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 10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 11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 있는 굴에서 나온다."
- 12 전초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다."
- 13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죽였다.

14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사람은 스무 명쯤 되었다.

15 이 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

20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죽이고 있었다.

21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22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23 그 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벳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b>관찰</b>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처음으로 요나단은 몇명의 전초부대원들을 쓰러뜨렸나요?
<b>해석</b>	적의 전초부대에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이 오라고 할 때 언덕을 오르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이 그러한 전투를 감행한 것은 무엇이 유리했기 때문일까요?
<b>먼저오심</b>	요나단이 “승리는 군대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6 절)라고 할 때 병사들이 그를 따라 용맹하게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마음이 바로 이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마음 자세인가요?
<b>만나주심</b>	작은 숫자의 병사로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첫 싸움에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겁에 질리기 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주님을 만나 어떠한 변화를 선물로 주시기 원하실까요?
<b>다듬으심</b>	사울은 자기의 지혜로 전쟁에 임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외적들과 싸울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이 영적 전쟁에서 싸울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b>들어쓰심</b>	요나단은 전세의 불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작전을 세웁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물어가며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당신이 지금 행동으로 옮기기 원하는 작전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에 들어쓰임을 받으며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b>공동체에서 실천</b>	지금 당신의 공동체가 직면한 영적인 위기는 무엇인가요?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당신이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9. “감사의 봉헌”

[삼상 15:7-23, 새번역]

7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월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8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 버렸다.

9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 떼와 소 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10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11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12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 주었다.

13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14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 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 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15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 떼와 소 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16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 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17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18 주님께서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19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21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 떼와 소 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22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3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관찰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얻은 좋은 전리품은 무엇이며 살려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해석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멸절시키라고 명하셨나요?
먼저오심	하나님은 사울이 이번에 싸울 대상을 정하여 알려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투에서 행할 일을 세밀하게 미리 알려 주십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만나주심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후환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때 당신에게 어떠한 미래를 선물하기 원하실까요? 당신의 삶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제거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다듬으심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광야시절 모세와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갈 때 방해했던 아말렉 족속을 벌하겠다고 말씀을 지키려 하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도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과의 약조를 어기고 신뢰를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신실함은 무엇인가요? 영적인 싸움에서 당신이 보여드릴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모습은 무엇인가요?
들어쓰심	사울은 전쟁에서 실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전리품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이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며 사울왕을 꾸짖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당신의 마음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 아니면 실리(계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동체에서 실천	믿음의 공동체가 취하는 자원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는지요? 한 번 살펴 봅시다.

## 10. “예상치 못한 다음 왕의 모습”

[삼상 16:1-13, 새번역]

1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2 사무엘이 여쭙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3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4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5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오.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6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7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8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9 이번에는 이새가 삼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10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일곱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11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 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 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12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흉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13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 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b>관찰</b>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b>해석</b>	예언자는 언제 무엇을 위하여 누구에게 기름 붓는 행위를 하는가요?
<b>먼저오심</b>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미리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기름부음을 통해 다음 왕을 미리 준비하고 세우시려 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삶을 축복하시려고 기름 부워 세워 주신 지도자들은 누구인가요?
<b>만나주심</b>	새로운 왕의 재목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예상을 벗어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리고 보잘 것 없는 냄새나는 목동! 그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라니 사무엘도 놀랐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하여 놀란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b>다듬으심</b>	7 절에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b>들어쓰심</b>	사무엘은 사울의 경계심을 지혜롭게 피하며 이새의 집에 당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2 절) 우리도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나요?
<b>공동체에서 실천</b>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소외되거나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은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 11. “준비된 일꾼”

[삼상 16:14-23, 새번역]

14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15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6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오실 것입니다."

17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 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18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19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 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20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21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22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23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 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b>관찰</b>	다윗은 사울왕 곁에서 어떤 악기를 연주하며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 지도록 도왔나요?
<b>해석</b>	다윗이 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21 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b>먼저오심</b>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찾아와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중요시 하지 않은 결과 였습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혹시 회복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나요?

<p><b>만나주심</b></p>	<p>다윗은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아는 냄새나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수금을 배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23 편은 다윗이 목동일을 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요?</p>
<p><b>다듬으심</b></p>	<p>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며 그의 마음 달래줍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관찰할 수 있었을까요? '반면교사(反面教師)'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앞으로 닮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이 영적으로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닮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당신이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p>
<p><b>들어쓰심</b></p>	<p>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이미 사람들에게 수금도 잘타고 용맹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평가(18 절)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p>
<p><b>공동체에서 실천</b></p>	<p>믿음의 공동체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 하는 이웃이 있나요? 당신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를 만나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p>

## 12. “믿음이 주는 진정한 용기”

[삼상 17:1-11, 32-40 새번역]

- 1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
- 2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 3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 4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러고 나섰다. 그는 키가 여섯 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5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오천 세겔이나 되었다.

6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7 그의 창자루는 베틀의 용두머리만큼 굽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육백 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나왔다.

8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 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9 그가 나를 쳐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10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11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

32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33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 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 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34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 떼를 지켜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 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35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 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36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37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 주신 주님께서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38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놋투구를 씌워 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39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 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40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 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릿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삼상 17:44-49, 새번역]

44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45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46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 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47 또 주님께서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48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p><b>관찰</b></p>	<p>골리앗의 키가 여섯 규빗 하고도 한 뼘이었는데 그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구인가요?</p>
<p><b>해석</b></p>	<p>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진 장소인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베스담뎀(1 절)은 지금 유다의 어느 지역인가요? (아래 *참고자료 참조)</p>
<p><b>먼저오심</b></p>	<p>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린 목동 다윗에게 벌써 훈련시키신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전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훈련 시키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p>
<p><b>만나주심</b></p>	<p>다윗은 시냇가에서 주어진 돌 다섯 개와 무릿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작은 사물들 이었지만 그 것이 믿음의 손에 들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사해 주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 때 당신의 손 안에 있던 믿음의 무릿매는 무엇이었나요?</p>
<p><b>다듬으심</b></p>	<p>다윗은 골리앗에게 '주님은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47 절)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도구인 믿음의 무릿매인가요? 아니면</p>

	다른 것인가요? 믿음의 무릿매를 통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승리는 무엇일까요?
<b>들어쓰심</b>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용기를 내어 싸웁니다. 당신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요?
<b>공동체에서 실천</b>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주는 무거운 전신갑주를 거절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엡 6:13-18)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적싸움을 위하여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전신갑주를 관리하는데 소홀했던 적은 없지요?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여야 할까요?

49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릿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히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 (참고할 자료: <https://youtu.be/QMn6PzOcVT8>)

### 13. “시기와 질투의 현장”

[삼상 18:10-16, 19: 1-5, 19:18-24, 20:12-16 새번역]

10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 때에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11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12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13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14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15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16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 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

1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2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3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쭙어 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 주겠네."

4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까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5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

18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옴으로 가서 살았다.

19 다윗이 라마의 나옴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20 사울은 다윗을 잡아 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21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22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옴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23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옴으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옴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24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 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 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

12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려겠네.

13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14 그 대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15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 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 주게."

16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b>관찰</b>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서 맡은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b>해석</b>	사무엘의 집에 당도한 사울과 부하들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b>먼저오심</b>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음 왕위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다윗에게 진정한 우애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다윗에게 향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실 때 미리 섭리(예비하여 돌보심)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돌보고 계시나요?
<b>만나주심</b>	사울의 명령으로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려 하지만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의 거처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갑자기 춤을 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찾아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지만 예언자의 집에 이르러 그들은 예배자로 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가라 앉게 됩니다. 당신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가요?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요?
<b>다듬으심</b>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었지만 오히려 훈련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 왕은 불완전 하며 신뢰할 수 없는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삶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어떠한 경험이었습니까?
<b>들어쓰심</b>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까지도 당신을 훈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당신은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나요? 당신이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 간구해 보세요.
<b>공동체에서 실천</b>	시기와 질투는 공동체의 내부를 파괴하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기도의 큰 제목이 됩니다. 공동체에 혹시 이런 사정이 있다면 지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 보세요.

## 14. “시련의 골짜기”

[삼상 21:10-15, 22:9-13, 19-23 새번역]

10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 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11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12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3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14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15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삼상 22:1-5, 새번역]

1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2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사백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3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 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 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

9 바로 그 때에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여 있던 에돔 사람 도역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농으로 와서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10 그 때에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쭙어 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11 그러자 왕은 아히둑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놋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아왔다.

12 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히둑의 아들은 똑똑히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13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네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네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5 그 때에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

19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을 놋에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 떼나 나귀 떼나 양 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20 아히둑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21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22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 날 내가 에돔 사람 도엑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 때에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b>관찰</b>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b>해석</b>	사울을 피하여 도망생활을 하던 다윗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나요?
<b>먼저오심</b>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흑독한 시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당신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 과정은 어떠했나요?
<b>만나주심</b>	다윗은 하기스 앞에서 광인 노릇을 하며 위기를 벗어나지만 사울의 계속되는 추격으로 인하여 피해가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할 지혜와 방책을 마련하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십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당신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나요? 그 동역자는 누구인가요?
<b>다듬으심</b>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 피해다니며 목숨을 연명하며 광인행세까지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운 제사장과 가족들이 죽음을 맛보는 아픔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을 어느 수준까지 성장시키시려고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p><b>들어쓰심</b></p>	<p>다윗이 사울의 압제를 피해 도망칠 때 다윗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압제를 받은 사람, 빛에 시달리는 사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와 다윗을 돕는 손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왕국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사역은 어떠한가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도모하고 있나요?</p>
<p><b>공동체에서 실천</b></p>	<p>믿음의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봅시다. 그들의 형편을 살펴며 함께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p>

23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 15. “원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삶의 자세”

[삼상 24:1-20, 새번역]

- 1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 2 온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 3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 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 4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걸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 5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걸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되었다.
- 6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 7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 8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9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10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1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겹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겹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12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13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14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15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16 다윗이 말을 끝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놓아 울었다.

17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18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 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네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 주었다.

19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 바란다.

<b>관찰</b>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다닐 때에 함께한 군사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b>해석</b>	엔게디 광야는 유다 땅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지형은 어떠한가요?
<b>먼저오심</b>	다윗을 쫓는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자리로 들어와 그의 코 앞에서 급하게 용변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한 장면을 만드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드라마틱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요?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p><b>만나주심</b></p>	<p>주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들에게는 슬기롭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심지어 원수들 앞에서도 인격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달라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p>
<p><b>다듬으심</b></p>	<p>다윗은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를 내려놓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기름부어 세우신 자이기에 자기가 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의 경계선(바운더리)을 분명하게 취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당신이 감히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p>
<p><b>들어쓰심</b></p>	<p>다윗은 원수의 마음 까지도 감동케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원수를 정복하는 일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용서의 사역을 위하여 당신은 지금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나요?</p>
<p><b>공동체에서 실천</b></p>	<p>믿음의 공동체에서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p>

20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 16. “관대한 지도자”

[삼상 30:1-23, 새번역]

- 1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 2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 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 3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 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 4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올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5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6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8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9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육백 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브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10 그래서 브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이백 명은 그 자리에 남겨 두고, 다윗은 사백 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11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12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한 개와 건포도 뭉치 두 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13 다윗이 그에게 물어 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14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15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네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16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17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사백 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하였다.

18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19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20 다윗은 또 양 떼와 소 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21 다윗이 브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 곳에 남아 있던 낙오자 이백 명이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22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 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23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 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오.

24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25 다윗이 이 때에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b>관찰</b>	아말렉에게 붙잡힌 다윗의 아내들 이름은 무엇인가요?
<b>해석</b>	아비아달이 보관하고 있던 에봇이란 무엇인가요?
<b>먼저오심</b>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시작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아말렉이 다윗의 군대가 다른 지역으로 출타한 틈을 타서 마을을 훼손하고 가족들을 노예로 잡아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아주 힘들고 비참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적이 있나요? 그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을 움직여 결국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나요?
<b>만나주심</b>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 임할 때 적군가운데서 도망친 소년(병사)을 통해 정보를 얻어 전쟁에 대비하고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적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 오셨나요? 그 신비스런 사건을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b>다듬으심</b>	다윗은 전쟁에 임하기전 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으로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성의(출 28:4)입니다. 아비아달은 사울을 피해 다윗에게로 도망을 때 이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삼상 23:9) 다윗은 전쟁에 임하기전에 갑옷을 의지하기 보다는 먼저 성의를 바라보며 자신의 군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급하게 싸움에 필요한 갑옷을 붙들고 스스로 문제를

	<p>해결하려 하는가요? 아니면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당면한 일들을 풀어가고 있나요?</p>
<p><b>들어쓰심</b></p>	<p>다윗은 자기의 진영을 넘어온 적군 노예를 본래 주인에게 보내는 고대 근동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몸이 약하거나 탈진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병사들에게도 전쟁에 참여한 이들과 균등하게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고대 중동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율례를 세워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관대한 마음으로 돌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통해 새롭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p>
<p><b>공동체에서 실천</b></p>	<p>당신의 공동체에서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기 쉬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지혜는 무엇일까요?</p>

## 17. “아쉬운 인생”

[삼상 31:1-13, 새번역]

- 1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 2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 3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 4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레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얹어졌다.

- 5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얹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 6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 날 다 함께 죽었다.
- 7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 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 8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9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 10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 11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들었다.
- 12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b>관찰</b>	사울의 마지막 전쟁터에서 그의 아들들이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b>해석</b>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왕의 주검을 거두어 장례를 치루며 금식을 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울왕과 어떠한 각별한 관계가 있었길래 이와 같이 했을까요?
<b>먼저오심</b>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당을 찾아 가르침을 청한 까닭에 이스라엘의 왕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전쟁터에서 패망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삼상 28, 역대상 10:13,14)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 의지하다 막중한 임무를 그르치는 결과를 맛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울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수차례 경고하였지만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 패망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무시하며 잘못을 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돌아 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b>만나주심</b>	사울왕은 자신에게 패망을 안긴 적군들을 가리켜 “할례 받지 못한자”들이라 칭합니다.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할례 받은 자)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당신이 부여받은 정체성(ID)는 무엇인가요?



<p><b>다듬으심</b></p>	<p>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쟁터에서 싸우다 전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세워지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은 한가지 큰 아쉬운 점을 남기었습니다. 하나님 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어떤 '많은 수고'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나요? 어떠한 일이 계기가 되어 그 깨달음이 왔나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당신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p>
<p><b>들어쓰심</b></p>	<p>주님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로 하여금 사울의 주검을 거두어 장사하게 합니다. 그들은 전에 사울왕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에게 마지막 예우를 표하였습니다. 당신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들은 누구인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그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실까요?</p>
<p><b>공동체에서 실천</b></p>	<p>우리 인간은 주님 앞에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인가요?</p>

13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